복합관, 성장성 한계 노출

건축용 생산능력 수요의 10% 불과 … 코스모산업 진출도 변수

국내 복합관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성장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기업의 가세까지 겹쳐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복합관 생산능력현황(1996)

구 분	생산능력	기술도입선	생산시기
유 공	1000만M	영국Kitec	1991
LG화학	400만M	스위스FAE	1992
현대강관	400만M	스위스FAE	1994
코스모산업	500만M	독일Unico	1995
합 계	2300만M	-	-

더욱이 복합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생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낮은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어 시장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복합관 시장은 93년 45억원, 94년 90억원에서 95년에는 전년대비 2배 성장한 18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당초 200~300%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치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용 시장이 연간 3억M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관의 최대 생산능력은 3000만M로 시장의 10%대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복합관 시장은 91년 유공이 1000만M 생산능력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이후 92년 LG화학(400만M), 94년 현대강관(400만M) 등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매년 200~300% 성장이 기대되었으나 95년을 고비로 성장률이 연간 50%로 떨어지는 등 수요한계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대해 유공 등 국내 생산기업들은 복합관 시장 평가가 당초 예견되었던 것보다 밑돌고 난방관도 여의치 못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한계는 난방용보다 위생용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합관 시장은 난방용과 위생용의 한세대당 필요물량이 7대3의 구성비를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5대5로 전환, 난방용 수요가 절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관은 PE 또는 가교 PE층 사이에 알루미늄튜브를 보강, PE파이프·금속관의 강도 및 부식 등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수요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모산업이 독일 유니코로부터 기술을 도입, 95년초 시장에 신규 진출하면서 시장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LG화학과 OEM방식으로 거래해왔던 코스모산업은 복합관 시장을 지나치게 호시장으로 평가, 500만M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시장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스모산업은 복합관 시장이 일반 플래스틱 파이프와는 달리 축적된 기술과 과다한 투자비를 필요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고, 제품 인지도 면에서도 기존 생산기업들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산기업들간 과열경쟁 및 수요 한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복합관은 가격면에서도 16mm 기준 미터당 700원선에 거래,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6/10/7>